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손 동 유*

“베르그송은 시간은 곧 기억이라고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모인 거대한 시간은, 뒤집어진 원추 형태로 그 꼭짓점이 현재의 물질적인 공간적 평면에 닿아 있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전이하는 행위이자, ‘시간의 원추’의 단면을 자르는 행위다. 원추 형태는 무한히 많은 단면을 자를 수 있다. 어느 높이 어느 각도로 자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단면이 만들어진다. (중략) 감동은 ‘시간의 단면’을 자르는 행위이다.”

- 저자 서문 중

1. 시간은 곧 기억이다

저자는 서울의 도심을 잘라 면을 만든다.

서촌, 인사동, 정동길, 세운상가, 낙원상가, 윤동주 문학관, 이상의 집, 환구단, 서울시 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지나쳤을 만한 ‘걸어서 갈만한 곳’들을 골라서 기억을 통해

*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접근한다.

도심 밖의 홍대 주변, 신사동 가로수길, 선유도 공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남영동 대공분실, 어린이 대공원, 노들섬도 서울을 자르는 새로운 단면이 되었다.

그의 기억은 주관과 객관을 넘나든다.

‘건축가 조한의 서울 탐구’라는 부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 개인의 기억과 감동을 통해 공간을 안내하기도 하고, 객관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추억, 학창시절의 별난 경험 등을 통해 그때의 그곳과 지금의 그곳을 동시에 소개하는가 하면, 객관적 사실 ‘김근태’를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해석하기도 한다.

그의 기억은 또한 공간(空間)을 공간(共間)으로 만든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변 마르세이유에 있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설계한 집합주거의 옥상과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링고토 피아트(Lingotto Fiat)공장 옥상이라는 공간(空間)은 그의 기억을 타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옥상 정원으로 와서 우리들과 함께 하는 공간(共間)을 이룬다.

한편, 외부의 기억은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

2005년 서울시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2급인 맹꽂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했고 맹꽂이들이 발견되었으나,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까지 파헤치며 공사를 진행하다가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오페라 하우스가 완공되면 ‘이동시킨 맹꽂이의 마리수만큼 다시 잡아서 노들섬에 새로 조성될 생태 습지에 풀어놓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 오페라하우스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고, 논쟁은 진행 중이다.

여기서 저자는 호주의 사례를 기억삼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시드니의 ‘브릭 피트(Brick Pit)’라는 곳에 올림픽 테니스장을 지으려다 멸종

위기종인 그린 앤드 골든 벨 개구리(Green and Golden Bell Frog) 300여 마리가 발견되자 건축계획을 취소하고 개구리만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 이 대목을 읽던 즈음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500년 된 원시림을 지닌 가리왕산에 스키장을 지으려하자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과연 시간은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가는 것인가? 기억은 교훈으로 승화되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는가? 정녕 그렇다면 가리왕산 스키장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간과 기억이 만나 미래를 설계한다

저자는 다양한 시간의 접근으로 공간을 기억해 낸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정국, 한국전쟁, 군사독재시기, 산업화시기 그리고 현재.

이어서 펼쳐지는 '미래의 기억'은 '새로운 경험'을 낳는다.

이 책에는 공간을 찍은 여러 개의 사진이 등장한다. 현재의 모습만 보여주는 사진이 있고,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여주는 사진도 있다.

특이한 것은 사진에 저자가 직접 손으로 스케치해서 재구성한 공간이 등장한다. '이랬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넘어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자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광화문 앞에 권위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외롭게 앉아 있는 세종대왕.

범접하기 어려운 크기와 예사롭지 않은 황금색 빛깔을 띠고 한편에서는 등만 볼 수밖에 없는 자세로 앉아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친근하고 편안하게 세종문화회관 계단으로 옮겨놓은 것은 이 책의 백미라고 본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광화문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렇게 닫힌 광장에 서서 열린 광장을 꿈꾸는 저자는 '감히' 세종대왕을 옮겨 앉게 한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른바 조선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초라하게 방치했던 조선시대의 제단이었던 '환구단'을 현재의 조건에서 충분히 복원하고 강조할 수 있다고 손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미래의 기억'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3. 이 책의 묘미 그리고 사족

저자는 시간, 시간의 변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공간을 이해한다. 타 지역 유사 공간에 대한 정보는 '지금' '이' 공간을 설계하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건축가인 저자의 역사, 철학, 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누구에게나 설명이 가능한 평이한 문장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는 내내 가보았던 곳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공감하거나 부분적으로 나만의 기억을 되살리며 읽을 수 있었고, 안 가보았던 곳은 짚나는 대로 가볼 요량으로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 탐구'를 하고 싶도록 동기를 만들어 준다.

우연히도 저자와 같은 공간에서 청년시절을 보낸 관계로 두 꼭지에 걸쳐 등장하는 홍익대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는 더 기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

한때, 그 동네 랜드마크였던 '계단집'은 정문을 마주보고 있어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80년대 후반 무수히도 돌과 화염병을 맞아야 했고, 주인아저씨는 연신 욕을 해대면서도 학생들에게 인심 좋게 막걸리 값을 외상 해주었던 선술집이다.

검정색, 하얀색, 기저귀용 노란색 고무줄을 촘스럽게 늘어뜨려 놓고 팔았던 '보라식품'은 학생들이 문어발과 막걸리를 언제든 살 수 있던 구멍가게였는데, 편의점이 하나 둘 씩 생겨나던 어느날 소리소문없이 없어졌다. 이들 두 공간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지금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홍대 정문의 건물, '홍문관'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1990년대 중반 축대 아래 부분에는 점포를 들여 화방을 운영하고 위쪽은 개인주택이었던 건물의 주인이 상업시설로 재건축하려하자 학교당국은 위해시설이 교문 앞에 들어선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학교앞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당연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대학의 입장은 부속학교에게도 영향을 줘서 비록 동원된 관계데모이긴 하지만 부속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교육환경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학원자주화 투쟁'을 학생회의 큰 이슈로 다루던 당시 대학생들은 건설폭력배들에 맞서 육박전을 감내하며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몸을 던졌다. 학교당국은 건물주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고, 위해시설을 막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 예정지를 학교가 매입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 다음 순서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활용되는 일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 지어진 홍문관에는 현재 적지않은 상업시설들이 빼곡히 입주해 있다. 대학생들이 몸을 던져 지키고자 했던 교육환경과 학교가 지키고자 했던 교육환경은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

홍문관이라는 공간은 상업시설을 품고 교정이 들여다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서 있는데, 그 건물이 세워진 과정의 기억과 기록은 쉽게 찾을 수 없다.

기억은 있는데 공간은 없고, 공간은 있는데 기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을 생각한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기억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

는 작업은 기억과 기록을 함께 확보했을 때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4. 마무리

건축가의 저작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은 우리에게 재현 또는 재연에 비중을 두면서 기능적으로 아카이빙을 사고하는 경향에 사유를 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간과 만나는 시간축은 각도에 따라 많은 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기억, 기억의 주체,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은 무수한 감동의 단면을 만든다.

아카이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무수한 공간과 시간축 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억의 단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자 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간, 시간, 기억, 여기에는 사람이 빠질 수 없다는 점이다.